

광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 분석과 발전방향* -유기농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학균** · 김창길*** · 장정경****

Analysis of Organic Agricultural Farming Organization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With Reference to Organic Farming Cluster-

Jeong, Hak-Kyun · Kim, Chang-Gil · Jang, Jeong-Kyung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anagement performance of organic farming management organizations in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focusing on cases of organic farming organizations in Chungnam Asan city and Gyeongnam Sancheong-gun which are leading regions in Korean organic agriculture.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Asan Organic Farming Organization showed that 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 in 2008~2009 increased by 1.2% point compared to in 2006~2007.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Sancheong Organic Farming Organization showed revenue gain by KRW 2 million in 2009 whereas it suffered a loss by KRW 24 million in 2008. The management performances implied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performance was not yet large and would be a symbol for soundly developing organic farming organizat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network system, recycling agriculture, and the enlargement of processing industry would be very useful to maximize synergy effect in organic farming organizations in a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Key words : *organic farming management organizations, 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 financial performance, organic agricultural industry cluster, recycling agriculture*

* 본 논문은 2009년 유기농업학회(12. 11)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I. 서 론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면서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저탄소 농업인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유기와 무농약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10%로 확대시킬 목표를 세우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 농축 수산물 유통확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 조성 사업은 단지별로 2~3년간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3년까지 1,000ha 규모의 광역단지 50개소를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 사례로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등 총 20개 지역이다(2006년 3개, 2007년 6개, 2009년 11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광역단지 사업 외에도 자생적으로 광역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충남 아산, 홍성지역, 충북 옥천지역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광역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게 된다면 친환경농업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단지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성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 경영체의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호·허승욱(1997)은 농협가공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이익률 및 투자수익률 지표를 이용하여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농협식품 가공공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명기·고종태·이종인(2004)은 강원도 정선군 무릉리지역 고랭지 채소농가의 1995년과 2003년의 현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기간의 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강태훈(1998)은 경상북도 전통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실적, 경영규모,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또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경영형태, 생산형태,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식품 가공업 육성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유기농업 분야 경영체의 경영성과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윤종열·김호(2005)는 충남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 매출실태와 유통마진 분석을 기초로 유통활성화 측면에서 직거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가 지원한 광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처음으로 진단하고, 유기농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본 논문은 광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의 사례로 충남 아산시의 푸른들영농조합법인과 경남 산청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체를 선정하여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기농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보면 제2장은 사례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진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제3장은 사례지역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하며, 제4장은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유기농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정부의 광역단지 추진사업의 개요

광역단지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광역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유기농업 비중이 매우 높은 충남 아산시와 경남 산청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충남 아산시는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가 형성되어 왔고, 특히 유기농 재배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정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7~'08년 사업이 이루어졌다. 경남 산청군은 2008년 기준 약 450ha의 대규모 유기농업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의 광역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7~'08년 사업이 이루어졌다.

1. 아산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충남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시는 남쪽의 산지에서 시작된 곡교천이 중심지역을 지나며, 곡류천의 상류 및 하류 지역에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아산지역은 광덕산과 영인산 등 청정자원이 풍부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통문화 자원으로 현충사, 외암리 민속마을, 온양 민속박물관 등이 있고, 휴양 및 관광자원으로 온천, 삼교천, 산정호 휴양단지 등이 있다. 아산지역은 대도시 및 수도권과 근접해 있으며,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아산지역의 평야지, 청정자연자원, 대도시와의 용이한 접근성 등의 특징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기반이 형성되어 왔다.

충남 아산시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친환경아산시생산자연협회’와 출자법인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한 살림 사업연합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생산자 연합회는 1996년 조직되어 생산주체로서 한 살림 정신과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운동을 전개해 왔다.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은 1980년 소비자 및 직거래를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었으며 2000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가공 및 유통주체이다. 생산자 연합회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105천 세대의 한 살림 사업연합을 통해 직거래 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정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산지역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종농업의 부산물을 유기축산용 사료로 이용하며 이 사료로 육성되는 유기축산물의 축분을 퇴비화해서 다시 경종농업에 지원 하는 형태이다.

아산시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의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유기적인 순환구조에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소득농가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다.

2. 산청군 광역단지 사업

산청군은 경남의 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중심 지역으로 외부로부터 큰 오염원이 없으며 남강의 지류인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11.32㎢, 수변구역 45.80㎢, 공원구역 111.35㎢, 보안림 38.76㎢ 등 총 207.23㎢(군 전체면적의 26%)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청군은 이러한 청정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차황면을 중심으로 1990년경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 1998년부터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도농 직거래 등을 통해 쌀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경종농업에 편중된 친환경농업으로 인해 양질의 유기농 퇴비 확보 문제, 소득증대의 한계, 고령화 심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질 고급화를 위한 수확·저장·가공·유통시설의 확보도 필요해졌다. 이에 차황면과 오부면이 주축이 되고 생초면 일부가 참여하여 산청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다. 2007년에 정부의 광역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7~'08년 사이에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었다. 경남 산청지역 광역단지 주요 사업별 사업비는 투입비중을 보면, 청보리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 19.6%, 벼 건조 저장시설 19.2%, 친환경 쌀 가공시설 15.4%, 유기질 퇴·액비 제조 및 미생물 배양 시스템 13.0%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1>. 향후 유기한우 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우의 등급에 따라 1등급은 도축해서 판매하고, 2~3등급은 육포용이나 육화용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1> 광역단지 주요 사업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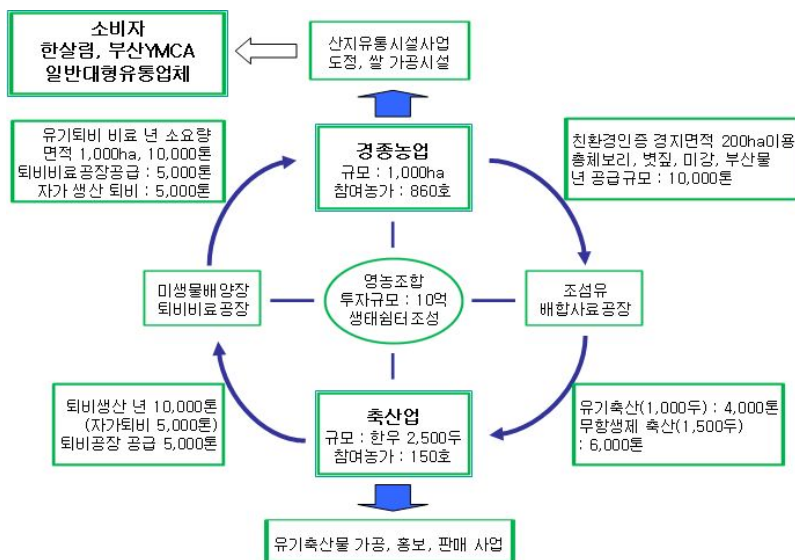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투자비 (비중)	기 대 효 과
유기질 퇴·액비 제조 미생물 배양 시스템	1,296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력증진, 생산성 향상 ■ 화학비료대체, 무농약 재배기술정착 등 ■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육질개선
우렁이 양식장	28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렁이 농법 확대
왕겨탄화 및 미강 펠릿시설	687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선 및 유기농법 활용
친환경축사	1,0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축산 인증기준 충족 ■ 경, 축 복합 순환농업의 규모화
청보리 섬유질 배합 사료 생산시설	1,958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인증 청보리 사료화로 유기축산 가능 ■ 조사료 생산 자급화 ■ 농지이용도 제고로 경종농가 소득 증대

구 분	투자비 (비중)	기 대 효 과
벼 건조저장시설	1,918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적외선 건조, 저온저장으로 고품질 쌀 공급 ■ 산물벼 수매로 농가 노동력 절감
친환경쌀 가공	1,544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교육체험장	950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기술 습득
조사설계감리비	362 (3.6)	-
전 체	10,000 (100.0)	-

자료 : 이문혁(2009)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1>은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자원순환형 농업을 지향하는 산청군 광역단지 조성 사업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종농가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사료작물을 생산하고, 축산 농가는 유기사료작물과 유기 농업부산물(벼짚, 미강 등)을 사료로 활용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한다. 유기축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퇴·액비화)하여 다시 경종농가에 공급한다. 산청군 농가들은 대부분 복합영농 형태이므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림 1> 산청군 광역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유기축산 5개년 계획 하에 위탁사업을 통해 유기한우 350두를 사육하고 있다. 위탁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황친환경축산영농조합에서 광역단지 사업을 통해 마련한 축사를 축협에 제공하고, 축협은 지자체와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농가에게 소와 사료를 구입하여 준다. 축협은 농가로 하여금 소를 사육하게 하며, 사육 농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유기축산을 확대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은 유기 농후사료와 유기 조사료의 공급이다. 유기축산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 농후사료 및 유기 조사료를 85% 이상 급여해야 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유기 농후사료의 수입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분석

충남 아산시의 경우 대표적인 조직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매출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또, 경남 산청군의 경우 광역단지의 주요 경영체인 유기질퇴비 및 액비 생산시설, 벼 건조 저장시설, 조섬유 배합사료 생산시설, 친환경쌀 가공시설 등의 경영수지자료를 조사·분석한다.

1. 아산시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아산 친환경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유통조직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구성을 보면(2009년 쌀 생산기준) 유기 62.8%, 유기전환기 12.0%, 무농약 5.7%로 유기재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2009년 기준)

구 분	인증구분	인원(명)	면적(m ²)	면적비중(%)
수도작	유 기	213	2,631,928	62.8%
	유기전환기	74	505,022	12.0%
	무 농 약	30	238,868	5.7%
	계	317	3,375,818	80.5%
노 지	유 기	49	230,555	5.5%
	유기전환기	37	145,115	3.5%
	무 농 약	13	292,414	7.0%
	계	99	668,084	15.9%

구 분	인증구분	인원(명)	면적(m ²)	면적비중(%)
시 설	유 기	23	128,209	3.1%
	유 기 전 환 기	2	4,855	0.1%
	무 농 약	3	14,185	0.3%
	계	28	147,249	3.5%
총 계		444	4,191,151	100%

자료 :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내부자료(2010).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식품(두부)가공공장이 완공되었고, 2004년에 통밀쌀, 통밀가루 가공시설이 완공되었다. 가공사업 외에도 수매사업, 유통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농산물 건조사업, 농산물 저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07~'08년에는 클러스터 사업 유치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보다 확대되었다.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당 연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29백만원에서 2008년 47백만원으로 연평균 크게 증가하였다<표 3>.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7~5.2%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는 2008년 이후의 이익률을 그 이전과 비교하였다. 2008~'09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0%로 2006~'07년의 1.5%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07년의 푸른들 영농조합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국, 충남보다 오히려 낮았으나, 2008년의 경우 2.8%로 전국, 충남 영농조합 영업이익률 1.8%,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경영분석

(단위 : 백만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농가당)	12,039 (29)	14,513 (40)	14,758 (39)	18,027 (47)	18,987 (43)
매출원가	10,744	13,138	12,828	15,231	15,598
매출총이익	1,295	1,375	1,930	2,796	3,388
영업이익	457	347	98	496	980
영업외수익	187	469	573	525	257
영업외비용	295	505	260	546	66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 상 이 익		349	311	411	475	573
영 업 이익률	푸른들	3.8	2.4	0.7	2.8	5.2
	전 국	2.2	2.6	1.9	1.8	-
	충 남	2.5	2.2	1.6	2.4	-
경 상 이익률	푸른들	2.9	2.1	2.8	2.6	3.0
	전 국	2.7	3.0	2.3	2.5	-
	충 남	2.8	2.4	2.0	1.7	-

주 : 1)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100으로 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매출액)*100으로 각각 산정됨.
 2) 전국과 충남의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통계청의 영농조합 법인당 경영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됨.

자료 : 통계청,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내부자료(2010).

연도별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1~3.0%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09년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8%로 2006~'07년의 2.5%에 비해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07년의 푸른들 영농조합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전국보다는 오히려 낮았고 충남보다 약간 높았으나, 2008년의 경우 2.6%로 전국, 충남 영농조합 영업이익률 2.5%, 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청군 광역단지 주요 경영체

산청군 광역단지의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유기 500ha, 무농약 170ha로 총 670ha 규모이다<표 4>. 산청군 광역단지의 유기한우 인증실적을 보면 2007년 129두, 2008년 184두, 2009년 350두(12월 15일 인증기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 분		농가수	실천면적(ha)
2006년	무농약	221	234
	유 기	197	217
	합 계	418	451

구 분		농가수	실천면적(ha)
2007년	무농약	228	241
	유 기	202	235
	합 계	430	476
2008년	무농약	120	100
	유 기	490	500
	합 계	610	600
2009년	무농약	180	170
	유 기	480	500
	합 계	660	670

자료 : 산청군 광역단지 내부자료(2009).

산청군 광역단지 주요 사업의 경영수지를 살펴보면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2008년에는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사업과 조섬유 배합사료 생산 사업만 운영되었고, 약 24,000천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2008년 사업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주요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9년 경영수지를 분석해보면, 유기질 퇴비 및 액비사업에서 6,000천원,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사업에서 11,000천원, 친환경 쌀 가공 사업에서 10,000천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조섬유 배합사료 생산 사업에서 매출이 충분하지 못하여 25,000천원의 손실이 발생한 결과 전체적으로 총 2,000천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표 5> 주요 경영체 경영수지 분석

(단위 : 천원)

		2008	2009
유기질 퇴비 및 액비	매출액	-	150,000
	비 용	-	144,000
	손 익	-	6,000
벼 건조 및 저장	매출액	15,000	19,000
	비 용	6,000	8,000
	손 익	9,000	11,000
조섬유 배합사료	매출액	88,371	800,000
	비 용	121,607	825,000
	손 익	-33,236	-25,000

		2008	2009
친환경 쌀 가공	매출액	-	100,000
	비 용	-	90,000
	손 익	-	10,000
합 계	매출액	103,371	1,069,000
	비 용	127,607	1,067,000
	손 익	-24,236	2,000

자료 : 산청군 광역단지 내부자료(2009).

IV. 유기농업 경영체의 실태진단과 발전방향

1. 유기농업 경영체의 실태 진단

아산시 광역단지의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생산, 유통, 가공 조직, 자연적, 문화적 자원 등 지역농업의 농업적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하여 친환경종합타운을 건립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특화하여 유기농산물 생산 비율을 70.8%까지 확대함으로써 광역단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유기경종과 유기축산의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정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 및 생산물의 HI-QC 생산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친환경종합타운을 지향하고 있다.

산청군 광역단지는 청정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유기농업이 발전해왔다. 지역 내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유기질 퇴비 및 액비제조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기축산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쌀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2차 가공하여 쌀 케이크, 쌀과자 등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주 작목인 유기농쌀 대부분을 한살림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비자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사례지역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산시 푸른들영농조합의 경우는 2008~'09년 매출액영업 이익률이 4.0%로 2006~'07년의 1.5%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8~'09년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8%로 2006~'07년의 2.5%에 비해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의 경우는 광역단지 사업이 진행되었던 2008년에 적자였으나 사업운영 초기 단계인 2009년 소폭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사례지역 유기농업 경

영체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기농업 경영체의 수익률 저해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례지역들이 비교적 최근에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투자 대비 수익이 현재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다면 이와 관련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지역 내 유기농 생산, 유기농 소비, 정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각각의 주체를 아우르는 추진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축산부문의 유기농 생산 및 가공 사업이 아직은 초기단계로 많은 제약요건들이 있어서 자원순환농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유기농업 경영체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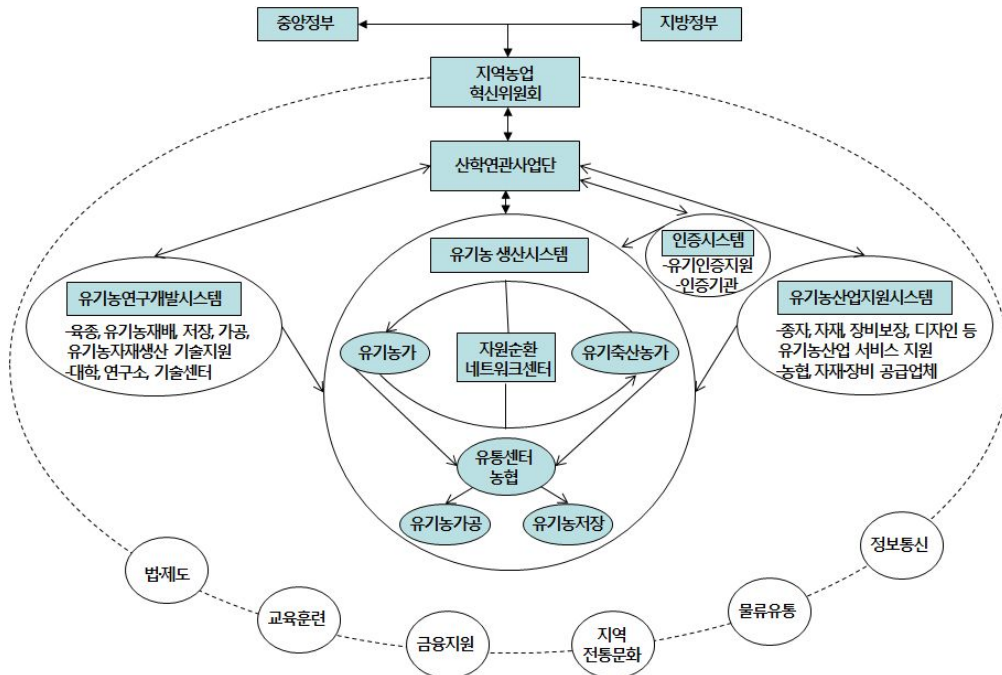
광역단지의 유기농업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경영체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하는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유기농산업 클러스터가 광역단지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산업 클러스터는 김정호 등(2004)의 농산업클러스터의 정의를 원용하여 “일정 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유기농업경영체와 유기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광역단지사업이나 자생적으로 형성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으며,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며, 생산·유통·가공시설과 교육체험기반 시설 등이 있으므로 유기농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로는 김정호 등(2004)에 의해 제시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에 유기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로 유기농산업 생산시스템, 유기농산업 연구개발시스템, 유기농산업 지원시스템, 유기농산업 인증시스템 등이 있다.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정의와 구성도에 비추어 볼 때 아산시 사례는 유기농 생산시스템이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의 관광 및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및 네트워크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시스템, 연구개발시스템, 산업지원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할 추진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 사례는 광역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사업체간 연계가 대체로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체별로 운영한 결과, 각 운영주체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 시스템은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 산청군의 경우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순환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종부문에서의 낮은 참여율은 향후 자원순환형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기농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유기농업 경영체를 활성화시키고 광역단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요구된다.



<그림 2>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도

첫째, 산·학·연·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개발 기능은 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이 연계된 자원순환농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종농가의 입장에서는 유기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유기질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이점이 있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축분 처리비를 절감하고, 농업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원순환농업을 위한 유기축산농가의 확대를 위해 고품질 유기사료 및 유기 조사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유기농 사료를 생산하고, 완전배합발효사료(TMF), 완전배합사료(TMR) 등 조사료 확보를 위해 호밀, 청보리(이모작)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볏짚 등의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증가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에 대비하여 가공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급식,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 가공물 생산 등 판로를 다변화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판로확대를 위한 대량 급식처로 유기농식자재의 학교급식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와의 판매망 구축,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유기농산물 생산능력 확대 등이 핵심과제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종부문 생산자와 축산부문 생산자, 생산자와 유통 및 가공업자, 유통 및 가공업자와 소비자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계약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 수단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유통 및 가공업자들은 확실한 판로를 원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그러한 계약조건 하에 약간의 수수료를 유통 및 가공업자에게 미리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유통 및 가공업자들도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생산자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원하기 때문에 상호간 계약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유기농업이 비교적 잘 발전된 아산시와 산청군의 사례를 건설한 유기농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과 지속적인 지원 및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의 건설한 수익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통 및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V. 결 론

세계적으로 웰빙 트렌드에 의해 유기농 시장규모는 연평균 20% 내외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취약한 생산기반, 낮은 소비자의 신뢰도 등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유기농 식품시장의 세계적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유기농산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년 들어 유기농식품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를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기반 구축, 기술개발, 유기농식품 관리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전략에서 보여지듯 유기농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든 자생적이든 현재 형성되고 있는 광역단지도 만약 광역단지 내에 유기농클러스터가 정착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유기농식품산업을 활성화 하

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농업이 비교적 많이 발전한 충남 아산과 경남 산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성과를 진단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업 경영체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지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광역단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운영 주체의 매출액이나 경영수지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 할 과제이다.

[논문접수일 : 2010. 5. 20. 논문수정일 : 2010. 7. 5. 최종논문접수일 : 2010. 9. 27]

참 고 문 헌

1. 강태훈. 1998. 전통식품가공업체의 경영실태분석. 한국식품유통연구 15(2): 159-178.
2. 김명기·고종태·이종인. 2004. 고랭지 채소농가의 경영실태 분석-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유통연구 21(2): 1-21.
3. 김정호 외.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 R4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창길 외. 2004.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R4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김창길, 정학균, 이상진. 200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C2008-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 호. 2006. 아산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1): 1-16.
7. 김 호·윤종열. 2005. 푸른들영농조합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와 발전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1): 69-84.
8. 김 호·허승욱. 1997. 농협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C농협과 Y농협 가공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15: 77-87.
9. 농림수산식품부. 2004.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협의회 자료.
10. 박현태 외. 2008. 지역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 개발. 연구보고서. 농촌진흥청.
11. 유덕기 외. 2006.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표준모델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12. 윤종열·김 호. 2005. 아산시 친환경지역농업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방향. 한국유기농

- 업학회지 13(1): 1-22.
13. Kotschi J. et al. 2004. The Role of Organic Agriculture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IFOAM.
 14. Lampkin, N. H and S. Padel. 1994. The Economics of Organic Farm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AB International.
 15. Hanson, J. C., E. Lichtenberg, and S. E. Peters. 1997. Organic versus Conventional Grain Production in the Mid-Atlantic: An Economic and Farming System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Alternative Agriculture 12(1): 2-9.
 16. Riodan, T. and D. Cobb. 2001.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Converting to Organic Agricul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2(1): 22-35.